음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17, Vol. 46, No. 3, pp. 47~71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형 뮤지컬 만들기 활동 지도방안 탐색*

임 새 롬**

본 연구는 뮤지컬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하는 교과 연계 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 지도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과 성격에 '음악을 중심으로 한 타 교과 및 예술 영역과의 연계'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모든 예술 영역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뮤지컬을 만들어 발표하는 활동에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된 본 연구는 뮤지컬을 구성 요소와 관계된 타 교과의 연계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행정적 기초부터 지도교사의 역할, 프로젝트 진행과정, 각 교과별 지도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뮤지컬 제작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과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학교 뮤지컬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주제어: 뮤지컬, 교과 연계, 교과 통합, 교과 융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차 례

Ⅰ. 서론

Ⅱ. 교과 간 연계학습의 의미와 필요성
1. 선행연구 고찰
2. 교과 간 연계학습의 의미와 필요성

Ⅲ.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형 뮤지컬 만들기 활동의 실제
1. 프로젝트 활동의 기초
2. 프로젝트 활동의 진행과 교과별 지도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

* 본 논문은 2014년도 임새롬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학과 박사과정, 대구 강북중학교 교사

Ⅰ. 서 론

현대의 공연문화 중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장르로는 단연 뮤지컬을 꼽는다. 세련된 음악과 무대, 화려한 안무, 의상 등의 장치들은 청소년들에게 꼭 한 번은 보고 싶은 선망과 동경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문화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계에도 몇 년 전부터 뮤지컬에 관한 교과수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과정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음악극에 대해 언급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뮤지컬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넘버'(뮤지컬에 사용되는 노래와 음악)를 불러보거나 기존 곡을 개사해서 반주음악을 틀어놓고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작수업 지도에 대한 어려움에 음악적 창의성과 무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뮤지컬을 만든다 하더라도 뮤지컬에서 중요한 요소인 발성과 연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세세한 지도가 없어 콩트 수준의 수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자도 현직 교사로서 학교 현장의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뮤지컬 수업이 재미나 웃음 위주가 아닌 음악적으로 질 높은 경험과 완성도 높은 뮤지컬 제작을 통한 성취감, 미적인 경험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치밀하고 세세한 지도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침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1.성격' 에서 음악을 중심으로 한 타 교과 및 예술 영역과의 연계에 대해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모든 예술 영역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뮤지컬을 만들어 발표하는 활동에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으로도 매우 적절하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 6학기 중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발견을 위해 전 교과가 평가 없이 서로 융합되는 한 학기를 운영한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뮤지컬 제작 활동을 운영한다면, 교과 간・예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연계・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감성 발달과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한다.

이에 학교현장에 적합하면서 수준 높은 뮤지컬 수업을 위한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형 뮤지컬 만들기 활동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뮤지컬 수업에 대한 학교 및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학교 뮤지컬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Ⅱ. 교과 간 연계학습의 의미와 필요성

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교과 연계와 뮤지컬에 대한 연구물은 없었으나, 유사한 개념의 통합과 뮤지컬이 관련된 연구는 다소 있었다. 그러나 각 연구의 본문에서 세운 통합의 개념이 수업 실제 안에서 쓰이는 방향과 상이하고, 통합의 영역 또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 내 영역의 통합 활동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뮤지컬 또는 음악극과 통합이 함께 연구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윤정(2008)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과 문학 통합을 통한 음악극 만들기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4-5쪽 가량의 짧은 글을 읽고 독후감 기록 후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조별로 대본을 만든다. 그리고 비제의 모음곡 중에서 장면과 어울리는 곡을 연결해보는 수업은 뒤이어 올 세 차시의 음악극 만들기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으로 바람직해 보였다. 학생들이 소설을 직접 읽고 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의욕을 보다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내용으로 부각되었다.

이은경(200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극을 활용한 통합적 중등음악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통합은 문학적·신체적·음악적·미술적·연출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술 영역 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5단계로 구성한 총 17차시 분량의 차시 계획안 중 1차시의 지도안을 구성하였는데,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점에는 동의하나 주중 1시간, 한 학기 17차시뿐인 고등학교 음악시간을 전부 음악극 만들기 수업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서 좀 더 전문적이면서 시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 교과와의 연계학습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채선영(201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내 영역과 타 예술 간의 영역을 통합한 뮤지컬 만들기 활동 방안을 연구하였다. 음악교육에서의 통합은 음악 영역과 예술 영역, 타 교과 영역과의 통합이 있음을 제시하고 그 사례를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찾으며 포가티(Fogarty, 1991)의 모형을 적용한 총 8차시의 뮤지컬 지도방안을 구성하였다. 뮤지컬을 만드는 전 과정을 상세하고 쉽게 제시하였으나 음악 수업에서만 진행하기에는 교사의 다재다능한 역량을 전제하고 있어 타 교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 외에도 뮤지컬 또는 음악극 수업을 연구하여 뮤지컬 만들기 활동방안을 제

시하면서 뮤지컬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있었다(임지현, 2009; 조하나, 2008; 이영미, 2009; 정예슬, 2011).

위와 같이 살펴본 뮤지컬 또는 음악극 수업 연구는 주로 학생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뮤지컬 만들기 순서에 따라 활동한 후 공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다소 기본적인 개론을 나열하거나 간단한 활동방안만이 제시되어 있어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이 뮤지컬의 본질과 깊이를 이해하고 경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시수 부족의 문제의 해결과 각 분야별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뮤지컬과 관련된 타 교과와 연계하여 학습하는 프로젝트형 뮤지컬 수업의 실효성 있는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교과 간 연계의 의미와 필요성

교육과정은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항목을 시작으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라는 항목을 통해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와 음악과 교육과정에 이어 최근 개정·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과 다르게 '음악과 성격'으로서 교과 간 연계뿐 아니라 다른 예술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간 연계학습 내용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2009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제 구조 개선을 위해 '학년군', '교과(군)' 접근을 시도하였다...(중략)...교과(군) 접근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배정에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음악과 교육과정>

가. 교수·학습의 방향

(4) 음악 표현 능력과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학교급별·학년군별·영역별 연계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이 음악학습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8) 음악 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한다.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1. 성격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음악 지식을 심화시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학습 경험을 확장시킨다.

첫째, 음악과 춤,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등 다른 예술 영역들과의 연계는 다른 예술의 표현 수단과의 결합을 통해 음악적 정서를 표현하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음악과 다른 예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인문·사회·자연과학적인 특성들을 발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키고,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음악과 교육과정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도 교과 간의 소통과 교육내용의 통합 가능성의 증진을 목표로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언급하고 있다. 포괄적 이해력, 종합적인 이해와 능력의 발달, 즉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를 아우르고 맥락적으로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인간으로의 발달을 목표로 한다.

뮤지컬에서 음악은 악기연주나 노래로써 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관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뮤지컬의 노래는 극의 틀을 형성하는 기본요소로서 극본의 진행과 함께 음악에 의해 극의 긴장과 이완이 결정되므로 음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교육으로서 뮤지컬 만들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가진 현재의 창의적 수준에서 가능한 새로운 뮤지컬을 또래와 함께 만들고,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며 얻는 과정적 경험과, 완성된 뮤지컬에 대한 결과적 경험을 통해 풍부한 삶의 질과 전인적인 성장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족한 시수로는 음악 교사만이 음악 시간에만 대본과 연기, 안무, 소도구 및 배경제작, 작곡, 노래 등 뮤지컬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양질의 통합 프로그램은 교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와 교육자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음악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의 통합적 시도는 빈번히 있어왔지만 여러 전문가들 간 의사소통의 한계는 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을 형식적이게 하거나 그 효과를 일회성에 머물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진원(2008)도 그의 논문을 통해 실제 지도에 있어서 부득이 한 교사가 모든 영역을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담당교사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구성이므로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주제의 방향이 명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저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는 것 외에는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타당한 영역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교사-전문교육가-예술가가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뮤지컬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 위한 작곡능력과 가창능력의 음악적 요소뿐 아니라 인간 삶을 관찰하고 사고하기 위한 역사의식, 나로부터 사회를, 사회로부터 나를 바라보는 생산적인 시각의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다. 또 도덕적 관점으로 고찰하는 가치 판단, 이를 바탕으로 극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한 편의 대본을 만들 때 필요한 글쓰기 능력과 올바른 말하기·듣기를 위한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토의를 위한 민주적인 태도, 협동심, 현실성을 위해 필요한 무대 장치와 소도구 제작, 다양한 동작으로 극적인 표현과 흥미를 배가시키는 안무 제작은 예술적 창의성을 향상시킨다. 이 외에도 역할놀이를 통한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 실감나는 연기를 위한 연습으로 신장되는 자기표현력 등의 교과적·비교과적 효과가 녹아있다. 이를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교과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수업한다면 뮤지컬의 전문성과 완성도는 높이면서 시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뮤지컬 만들기 활동을 음악교과만의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음악 이외의 각 요소에서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지도할 수 있는 해당 교과 교사와 음악 교사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뮤지컬은 음악적인 요소가 주축인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위 교과들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 즉 음악을 비롯한 연기나 분장 등과 뮤지컬 공연을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연습 과정들은 모두 음악교과에서 총괄하기로 한다. 방과후학교에서도 연극이나 뮤지컬 수업을 개설하여 동아리와 연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교사가 학교 내에서 전문가와 협력하여 뮤지컬 만들기 활동을 지도하는 일은 비교적 어렵지 않으며 전공 분야가 아닌 것을 지도해야 하는 부담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시간에 각자 글을 쓰고 미술 시간에 각자 그림을 그리는 개별 활동보다 여럿이 함께 연출자로, 작곡가로, 디자이너로, 배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서로 상의하고 협동해온 각각의 결과물이 하나의 작품으로 녹아든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공연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감동과 성취감, 희열을 가져올 것이다. 학교에서 뮤지컬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음악교사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이 프로젝트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공연 예술에 관심을 가지며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으로부터의 내면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음악활동은 특별한 것이 아닌 스포츠만큼 일상적인 일이 되고 나아가서 음악교육의 당위성과 저변이 확대되고 발전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과 간의 연계가 뮤지컬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준 높고 작품성 있는 뮤지컬을 위해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미 그 자체로서 해당 교과의 학습목표가 성취되며, 그러한 수업들이 연계되어 동시다발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얻어진 결과물들이 뮤지컬의 각 요소로 융합됨과 동시에 역으로 각 교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즉 교과와 뮤지컬의 상호 연계가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되며, 이것이 바로 뮤지컬 만들기 활동에서 교과 연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어를 예로 들면, 대본 수업을 단순한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뮤지컬 대본 작업으로 실현하여 이를 공연하게 될 때, 대본 이론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지며 대본과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그 자체로서 국어수업의 학습목표가 달성되었고, 이러한 활동 후 극을 감상할 때에는 단순히 극을 보는 형식적인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대본화가 동시에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대본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면 또한 뮤지컬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문화를 한층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뮤지컬 만들기 활동에서의 교과 간 연계학습은 뮤지컬과 타 교과 간의 윈윈(win-win)전략으로서 매우 의미 있으며, 이것이 곧 교과 간의 연계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Ⅲ.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형 뮤지컬 만들기 활동의 실제

1. 프로젝트 활동의 기초

교육현장에서 뮤지컬 만들기 활동과 교과 간 연계학습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적인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음악 교과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 이 활동에 대해 음악 교사는 연계해야 할 해당 교사들에게 먼저 의견을 수렴 후 학교에 특색사업을 신청하거나 행사로 건의할 수 있다. 교과 간 연계 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는 한 교과 내에서 한 교사만이 지도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사전 준비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타 교과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게 되고 그 손실은 음악 교과가 고스란히 받게 되므로 반드시 충분한 협의 하에 시작하도록 한다.

1) 프로젝트 활동의 절차

교육현장에서 뮤지컬 만들기 활동과 교과 간 연계학습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적인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겨울방학이나 이르면 전년 2학기부터 다음해의 학사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므로 음악교사는 프로젝트의 진행이 매끄럽고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음악 교과가 주축이 되는 이 활동에 대해 연계할 해당 교과 교사(국어,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 체육)들과 먼저 의견을 교환한 후 학교에 특색 사업을 신청하거나 행사로 건의할 수 있다. 교과 간 연계 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는 한 교과 내에서 한 교사만이 지도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사전 준비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타 교과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므로 반드시 충분한

협의 하에 시작하도록 한다.

○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교과 교사들이 모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 각 교과 간의 통합적인 면과 개별교과의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평가의 방법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과별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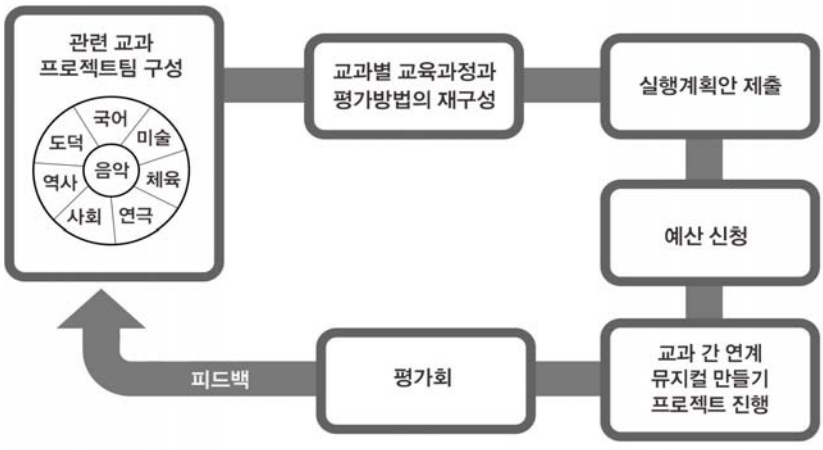
○ 수렴된 각 교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결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율하며

○ 관련 교과 진도안, 평가계획, 프로젝트 진행 기간 및 방법, 행사 장소·날짜 등 행사 진행 계획, 기대되는 효과 등이 고안된 프로젝트 실행계획안을 제출한 뒤

○ 예산을 신청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평가회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후 프로젝트에 반영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프로젝트 활동의 절차

2) 세부내용

(1) 목적

○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 혁신을 실현한다.
○ 협력학습을 위주로 하는 학년 중심의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 활동을 실현한다.
○ 교과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체험 중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지성 교육을 실천한다.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문화체험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2) 방침

○ 음악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교과 담당 교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되, 학년별 교과 간 연계 활동으로 진행될 때는 학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년별·교과별로 뮤지컬 만들기 활동에 관련된 영역을 찾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 각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찾아 관련된 모든 교과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한다.
○ 활동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인다.
○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를 통해 진행 내용과 성과를 고찰·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반영한다.

(3) 기대효과

○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체험활동 및 실천을 통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다.
○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협동학습 중심의 교과 연계 프로젝트 활동을 실현할 수 있다.
○ 교과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 활동의 종료 후 성과에 대한 시상, 대외 발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음악의 생활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3) 지도교사의 역할

뮤지컬의 이야기와 이를 극예술로 만드는 작업 속에서 모둠은 또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된다. 공연을 위한 모둠 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자신과 또래의 경험을 반영하여 펼쳐내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세상과 삶,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올바르고 균형감 있게 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이며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의 조력자이자 아이디어와 정보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적 실천과 창의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의 전체적 구도를 관조하며 조언하는 실질적인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뮤지컬 활동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과 뮤지컬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뮤지컬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사는 뮤지컬 연수나 각종 워크숍을 통해 뮤지컬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뮤지컬 만들기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노드만(E. Nordmann)은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예술교육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며 생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동들이 풍부하게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민경훈, 2007, 재인용). 경험하는 것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과 작품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의 조언을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부터 우선 지도할 만한 예술교육적 지식과 미적 경험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지도를 위한 훈련을 마친 교사들이 실제로 학교에서의 뮤지컬 만들기를 진행하고 난 후에는 다른 교사들과 의견이나 자료를 교환하도록 한다. 실제 지도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뮤지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면서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한다면, 뮤지컬 만들기 과정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사는 계획 단계에서 교과 간 연계를 활용한 제작 단계의 구성, 학생들의 모둠 편성과 역할 분담, 극 중 음악의 배치, 공연을 위한 소품과 무대, 의상, 조명 등 각종 연극적 요소의 디자인, 공연 후의 평가와 마무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면서도 학생들의 전면에서 지시하거나 지적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생각이 틀에 갇히게 되거나 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지적을 받은 후로는 움직임이나 음악적인 표현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생들의 창조적 표현을 위한 기술적인 조언과 격려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교사는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모둠과 각 구성원의 반응과 성장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음 진행에서 지도할 내용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실력이 다른 각 모둠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위해 기술의 완성이 목표가 아닌 풍부한 상상력으로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을 이끌 수 있는 고유한 지도방법들을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상과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 즉 선율을 창작하고 배경음악을 만드는 지식, 창법과 연기에 대한 지식, 상상력을 자극하여 움직임으로 연결해낼 수 있게 만드는 화법을 익혀야 한다.

학생들이 모둠으로 활동하며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토론을 통해 인물과 줄거리를 형상화하고 대본과 노래를 창작하며 안무를 만들고 무대를 꾸미는 극화작업 과정에서의 모든 활동이 자신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으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뮤지컬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은 음악을 애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음악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훗날 청소년들의 음악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명분에 공감하는 주체이자 음악의 향유자·소비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뮤지컬을 만드는 활동은 공연의 주체자인 학생과 모든 과정의 조력자인 교사 간의 인내와 신뢰로 완성된다.

2. 프로젝트 활동의 진행과 교과별 지도방안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교과와 각 교과의 학습내용은 <표 3>과 같다. 2학기 초기에 사회·역사·도덕 교과에서 시작하면 다음 교과가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이는 각 활동에 해당하는 교과별 지도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차시에 제시된 내용을 반드시 1차시 분량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수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동 내용의 시수는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교과별 수업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협의하여 잘 맞물리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표 2> 교과별 학습내용

뮤지컬	**문학적 활동**	**사회·역사·도덕**	· 주제의식 학습 · 뮤지컬 소재 결정
		국어	· 주제 선정 및 대본 창작 · 가사 만들기
	음악적 활동	**음악**	· 모둠 편성 및 역할 분담 · 뮤지컬 이해 · 뮤지컬 소개 발표 및 감상 · 배경음악 및 효과음 선정 후 편집 · 넘버 창작 · 노래 분석 및 연습, 모니터링 · 무대 연출 및 총연습
	신체적 활동	**연극**	· 호흡과 발성, 신체 훈련 · 대본 리딩 · 대사에 따른 동선 구상 및 연기 훈련
		체육	· 창작 체조의 이해 · 뮤지컬에 어울리는 안무 창작 · 작품 발표 및 평가
	미술적 활동	**미술**	· 무대배경, 대도구, 소도구, 의상 제작 · 무대 연출 ·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1) 사회 · 역사 · 도덕

사회·역사·도덕과는 뮤지컬의 요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학교 뮤지컬을 만드는 학생들이 쓸 대본을 위해 세계와 민족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의 논제들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구상하기 위해 연계해야 하는 교과이다. 웃고 즐긴 후에 남는 메시지가 없는 뮤지컬 내용은 학교에서 활동할 교육적 필요성이 낮다. 그러므로 또래집단에 민감하고 자아에만 머무르기 쉬운 학생들의 관심이 '나'로부터 '가족'과 '사회'로 옮겨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교육적인 주제를 학습하는 것이 사회·역사·도덕과의 연계 목표이다.

이 과목의 수업에서는 환경오염, 인권, 협동, 부익부 빈익빈,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1] 등의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고찰하는 쟁점의

1)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 즉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격언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

식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찬반의 입장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토론 수업은 사회·도덕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업방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통 능력을 기르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갖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토론 수업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학생들의 사전 조사는 필수적이다. 조사해온 자료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수업을 진행한 후 교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자신의 주장이 보완되고 개념이 학습되는 과정은 사회·도덕과 수업뿐 아니라 세계 및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역사 수업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리하여 사회·역사·도덕과 수업 중에 선정된 소재에 따른 토론 자료와 주제는 국어 수업 시 대본 창작의 밑거름으로 이어진다.

<표 3> 사회·역사·도덕과 차시별 지도내용

교과	차시	지도단계	지도내용	자료
사회 역사 도덕	·	주제의식 학습	· 다문화, 환경오염, 인권, 협동,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 사회 문제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 시청 ·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글쓰기	· 관련 시청물

2) 국어

뮤지컬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대본은 실제 공연을 위한 노래, 춤, 연기를 만들어내는 바탕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대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대본은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에 본문이나 예시글로 나와 있는데, 특히 갈등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단원의 본문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단순한 이론수업이 아닌 뮤지컬 대본 작업으로 실현하여 이를 공연하게 될 때 대본 이론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지며 대본과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대본 작업을 통해 모둠별로 완성한 하나의 대본을 실제 공연으로 연결하여 적용함으로서 학생들이 글쓰기 활동에 더 열정을 가지게 하며, 구성원들이 연기할 극중 자신의 인물을 설정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로 글쓰기 활

동에 적극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대본을 뮤지컬 실황 영상과 함께 보여주고, 대본의 지문이나 지시어가 무대 장치와 배우의 연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야기 단계의 구조, 플롯 구성 등 대본의 구조에 관해 인지하도록 하게 한다. 또한 주제, 소재, 인물, 사건, 배경의 갈등 상황을 분석하여 대본 작성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뮤지컬을 위한 대본이므로 무엇보다 배경음악이 삽입될 부분이나 노래로 처리할 장면의 대사를 가사로 만드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노랫말 만들기 활동'은 시를 가사화하거나 기존의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으로, 국어 교과 전반에 걸쳐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의 심화로서 대본에서 노래로 만들어 부를 특정한 장면의 대사를 뽑아 노랫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는 뮤지컬 넘버를 위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노래로 처리할 중요한 장면의 대사를 가사화 시키는 활동이다.

대본에서 노래로 만들어 부를 특정한 장면을 선택하여 대사를 가사화한다. 특정한 장면이란 뮤지컬에서 핵심적이고 극적인 부분으로 극중 인물의 갈등 심리가 충분히 드러나는 장면이어야 한다. 이때 가사는 장면의 핵심을 함축하여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다. 노래가 들어갈 장면을 선정하여 상황에 어울리는 가사로 바꿀 때에는 가사가 지녀야 할 핵심적인 장면의 주제를 염두에 두고 독창, 중창, 합창이 골고루 삽입되도록 한다. 또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경음악과 효과음이 들어갈 부분도 모둠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선율이 있는 노래뿐 아니라 리듬을 창작하여 각운을 살린 랩 가사를 만드는 것도 뮤지컬 음악의 다양성과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취지로 권장할만한 작업이다.

노래가 들어갈 장면이 선정되면 대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역할을 맡은 배우가 가장 자연스러워지도록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고쳐나가도록 한다.

활동 대상 학년이 낮을수록 새로운 대본을 창작하는 일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문학 작품을 대본화 시켜 자신들이 설정한 주제와 소재에 맞게 각색한 결과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문학작품은 기본적인 줄거리와 인물, 사건, 배경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롯으로 재구성하기가 쉬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균형, 2000).

<표 4> 국어과 차시별 지도내용

교과	차시	지도단계	지도내용	자료
국어	1	대본 이해	· 뮤지컬 공연 영상과 대본을 함께 보며 감상 · 대본 분석 · 대본의 구성(인물/사건/배경) 이해	· 공연 영상자료 · 작품 대본
	2	쓰기 연습	· 동화 등의 기존 작품을 활용하여 대본으로 각색 연습	· 동화 등 기존 작품
	3	초안 작성	· 음악 시간에 정한 소재에 따른 인물과 배경을 설정하여 각자 시놉시스 쓰기 ·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브레인 스토밍과 마인드 맵을 활용한 모둠별 글쓰기 · 한 줄 주제쓰기 · 장면을 나누어 스토리 보드 만들기 · 발표 후 평가	
	4	초안 수정 · 가사작업	· 모둠별로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20분 내외의 대본 만들기 · 노래로 만들 장면 선정 후 가사 작업하기	
	5	대본 완성	· 대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완 후 완성하기	

3) 미술

극중 인물의 캐릭터가 구축되고 대본과 음악이 창작되면 미술교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미술교과에서는 뮤지컬에 필요한 무대배경을 제작하는 것과 대도구와 소도구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공연 초대장과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무대배경으로 무대 3면에 세우거나 걸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한데, 이는 무대 크기에 맞는 천을 재단하여 극의 가장 보편적인 배경을 직접 그릴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프로젝터를 이용해 각도를 잘 살려 찍은 배경사진을 비추어 대신할 수도 있다. 다만, 비추고자 하는 벽면이 백색의 무지여야 효과가 발휘된다.

대도구는 무대에 고정 배치된 도구로서 소파, 책상, 의자 등의 가구 등의 무대 장치이며, 대도구보다 작지만 하나의 장치가 극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스탠드, 전화, 책, 꽃병 같은 물건들을 소품(properties)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도구는 극중 연기에 활용되는 작은 물건들로서 배우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는 악세서리 같은 것들을 일컫는다. 소도구가 없으면 극의 사실성이 상실되므로 소도구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한옥근, 2006).

대도구나 소품, 의상의 경우는 극과 인물의 개연성에 맞는 물건들을 생활에서 가져올 수 있으나 소도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극에 어울리는 것으로 직접 제작하게 된다. 가상의 극중 인물이 현실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어울리는 소도구를 상상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사물로 드러내야 한다. 극의 장르와 인물의 성격, 시대와 배경에 따라 같은 종류의 소도구라도 색과 디자인이 달라진다. 제작 후에는 소도구가 극에 얼마나 적합하며 배우가 가지고 연기하기에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공연을 홍보할 공연포스터와 리플렛(leaflet)을 만든다. 공연 날짜와 장소, 공연제목, 공연의 주제 문구 등 삽입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공연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림으로 직접 그리거나 공연 리허설 중 한 장면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 활용할 수 있다.

<표 5> 미술과 차시별 지도내용

교과	차시	지도단계	지도내용
미술	1	무대 연출 1	· 극중 무대 배경이 바뀌어야 할 부분을 선정하여 사진이나 그림으로 처리하도록 협의 · 협의된 결정사항을 제작
	2	무대 연출 2	· 인물의 성격이나 극의 장면에 어울리는 소도구와 의상 구상 · 소도구 제작 · 공연에 필요한 대도구·소도구·의상 일람표 작성(소품 담당)
	3	포스터 제작	· 작품을 대표할만한 사진이나 그림을 제작하고 장소/일시/제목/문구 등을 삽입하여 포스터 제작 · 모둠별로 가장 잘된 작품을 선정하여 인쇄
	4	리플렛 제작	· 시놉시스(주제와 대략적인 줄거리), 배우 및 스태프 소개 등을 디자인한 리플렛 제작

4) 체육

안무를 삽입하기로 한 넘버에 어울리는 안무를 구상한다. 안무를 통해 극의 긴장이 고조되고 넘버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난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동작으로 구상하도록 한다.

<표 6> 체육과 차시별 지도내용

교과	차시	지도단계	지도내용	자료
체육	1	창작 체조 이해	· 창작 체조의 이해 · 창작 체조의 기본 요소(시간/공간/힘/흐름) 이해 · 심미 요소(조화미/연속미/균형미 등) 이해 · 작품 구성(시간적/공간적/음악적 구성)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본 동작 익히기 · 독무/듀엣/군무 등 춤의 종류와 형태의 이해	· 관련 시청물
	2	작품 만들기	· 극중 안무를 삽입할 장면 선정 · 모둠별로 안무를 맡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과 극의 분위기, 무대 사용 범위 등을 고려한 안무 창작 · 대형의 변화나 다양한 소품의 활용에 대한 모둠별 협의 · 악보에 안무 콘셉트(concept)를 간단히 표시	
	3	작품 연습	· 창작한 안무를 반복적으로 연습 · 안무에 어울리는 공간 구성(대형의 변화, 이동경로)와 소품·의상을 활용한 전체 안무 완성 · 음악에 맞추어 전체 안무 확인	· 음원재생 기기 · 스피커
	4	작품 발표 및 평가	· 모둠별 작품 발표 및 평가 · 평가내용과 녹화한 영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무 수정 및 보완	· 비디오 카메라

5) 음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뮤지컬에서 음악은 악기연주나 노래로써 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관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공연예술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조사·발표를 통해 정보를 접하며 뮤지컬을 알아가는 시작단계에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뮤지컬의 장면에 따라 직접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정하고 효과음을 넣으며 음악적인 요소를 완성시켜야 하는 음악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면의 극적 효과와 음악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뮤지컬을 감상할 때 장면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음악 장르가 사용되었으며 어떤 악기로 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짚으며 이해하고 감상할 때 음악적으로 풍부한 경험이 가능하다. 나아가서 뮤지컬뿐 아니라 다른 음악을 감상할 때에도 음악이 그렇게 작곡·연주된 이유를 생각하고 이해하며 듣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도 무대에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뮤지컬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 감정을 이입해 부르는 배우의 노래를 듣고, 느끼고, 감각을 열어 지각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심미적인 음악 경험과 듣기능력이 발생한다. 학생들은 배우이자 관객이기도 하므로 비판하며 듣는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다.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수정해야 표현이 더 잘 되는지에 대해 서로 조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의 가창력 신장과도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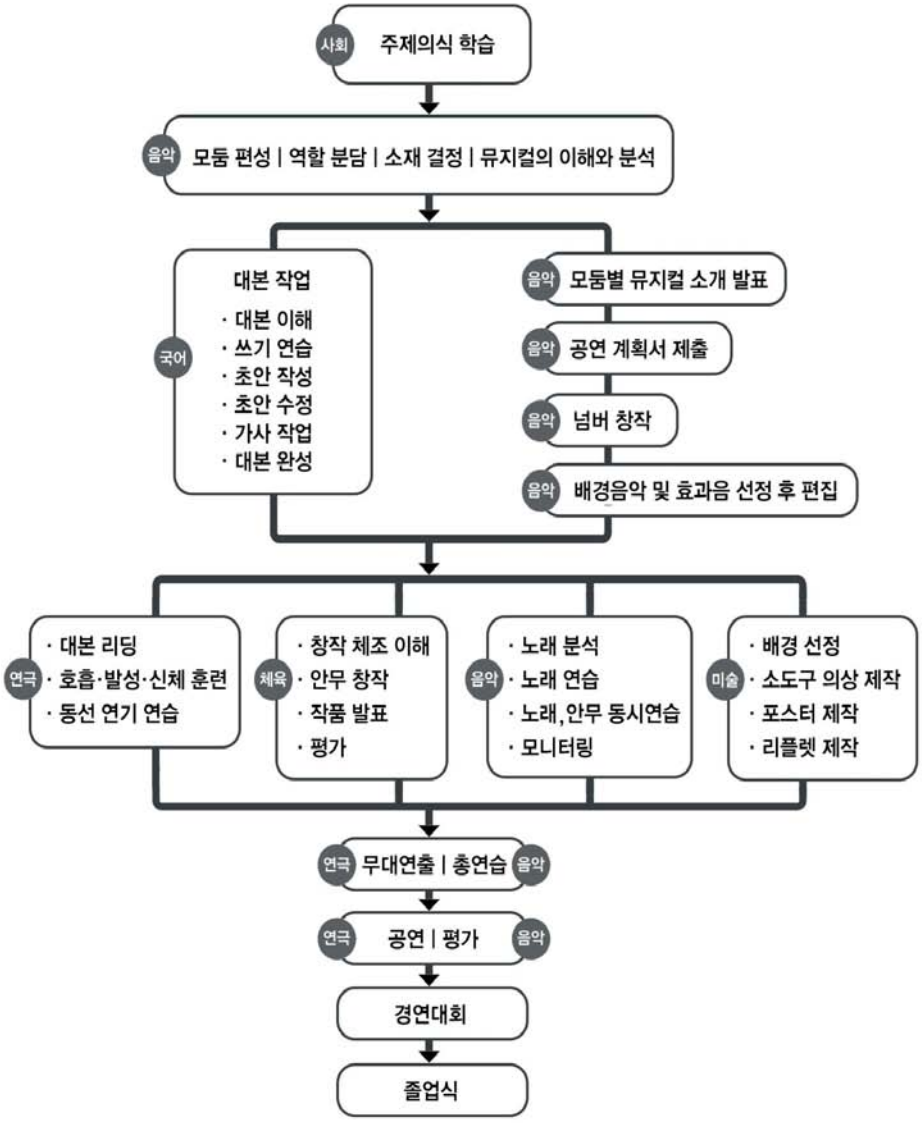
학생들은 노래하며 연기하는 배우로서 자신의 넘버를 반복적으로 부르며 연습함에 따라 자세와 호흡, 발성, 발음이 좋아질 수 있다. 이는 물론 단기간에 확연히 드러나는 변화는 아니며 개개인의 연습량에 따라 달라짐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학교 여건상 개별 마이크 없이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크고 바른 발성은 필수적이며, 연습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어색하여 소극적인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표현력이 증가됨은 물론이다. 극은 노래를 부를 때에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정을 잡고 연기를 해야 한다. 이때, 장면을 탐색하고 판단하여 연극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도록 표현해야 하는데, 이 표현력의 신장 또한 자세, 호흡, 발성, 발음과 같은 기본능력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뮤지컬에 삽입될 넘버를 직접 작곡하는 작곡가로서 사보 프로그램이나 건반악기를 활용한 작곡 능력도 신장될 수 있다. 한도막이나 두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 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꼭 높은 수준의 음악성을 갖추어야 발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거쳐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표 7> 음악과 차시별 지도내용

교과	차시	지도단계	지도내용	자료
음악	1	모둠 편성 역할 분담 뮤지컬 이해	·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하여 반별 3개의 모둠이 짜여지도록 10명 내외로 구성 · 뮤지컬 관련 직업 조사 과제를 바탕으로 역할 분담 · 뮤지컬 구성요소 및 구조 분석	· 뮤지컬 영상자료
	2	뮤지컬 소개	· 모둠이 정한 소재와 유사한 2편의 뮤지컬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과제 발표 및 감상 · 발표 후 교사는 요소별(문학적/음악적/신체적/미술적) 이해를 위한 피드백	
	3	배경음악 및 효과음 편집	· 배경음악과 효과음의 역할 이해 · 다양한 음악과 효과음을 들어본 후 어울리는 곡 선정 ·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원 편집하기	· 여러 영상자료 ·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
	4	넘버 창작	· 피아노나 사보 프로그램를 활용하여 두도막 형식의 가락짓기 · 기존 곡 변주하기	· 피아노 · 사보 프로그램
	5	노래 분석 노래 연습 모니터링	· 뮤지컬 넘버 분석 · 뮤지컬 창법 이해하기 · 역할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노래하기 · 독창, 중창, 합창 등 극의 전개에 따른 적절한 형태로 노래하기 · 안무와 노래 동시에 연습하기 · 매 연습마다 즉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도록 녹화된 내용을 보고 연출자를 중심으로 모둠별 협의 진행	· 여러 영상자료
	6	무대 연출 및 총연습	· 무대 연출 · 모둠별 총연습 · 평가 및 피드백 · 관람예절 및 커튼콜 이해하기	· 비디오 카메라 · 컴퓨터 · 모둠별 무대장치
	7	공연 및 평가	· 무대 설치 · 공연 및 평가 · 정리	· 상동

위에서 살펴본 교과별 지도내용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순차적·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교과 간 연계 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의 진행과정

Ⅳ. 결 론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뮤지컬 관련 수업은 창의적이라고 보기엔 무리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요를 그대로 가져와서 가사만 바꾼 넘버, 대본형식을 따르지 않은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이 없이 펼치는 연기, 뮤지컬 공연 형식을 생략하여 무대장치나 소품, 의상 등의 부재로 사실성과 진지함이 떨어지는 수업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단순히 교과서에 수록된 넘버를 불러보거나 한 장면을 감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로 인해 창의력·음악적 능력의 향상 등 뮤지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교육적인 효과들을 놓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광범위한 뮤지컬의 각 요소를 음악교사 혼자서 지도하기에 비효율적인 수업 시수 부족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으로 야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음악과 교육과정,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과간 연계 뮤지컬 프로젝트 활동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뮤지컬의 특성상 음악 교과가 주축이 되는 연계 활동을 구상함으로써 뮤지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절차 및 운영 계획과 관련 교과별 세부 지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과 융합적인 교과 간 연계 프로젝트형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뮤지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뮤지컬의 전문성과 완성도는 높이면서 수업 시수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음악수업에서 완성도 높은 뮤지컬을 학생들이 모둠별로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공동체 정신과 창의성,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생들은 뮤지컬을 직접 만드는 제작자인 동시에 감상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뮤지컬에 대한 다각도적인 안목과 감상 비평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타 교과 교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지도로 수준 높은 뮤지컬을 학생들 스스로 협력하여 완성하였다는 성취감과 애착이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에 연구된 내용들보다 심도 있는 지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뮤지컬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과 향후 학교 수업에서의 뮤지컬 만들기 활동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시간에 각자 글을 쓰고 미술 시간에 각자 그림을 그리는 개별 활동보다 여럿이 함께 연출자로, 작곡가로, 디자이너로, 배우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서로 상의하고 협동해온 각각의 결과물이 하나의 작품으로 녹아든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공연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감동과 성취감, 희열을 가져올 것이다. 학교에서 뮤지컬 만들기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향후 교과 간 연계를 통해 뮤지컬을 만들고자 하는 교육 현장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2].

교육부 (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김균형 (2000). 중등학교 연극 특기적성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연극교육연구. 6**. 86.

김윤정 (2008). 음악극을 통한 통합적 음악 교육 방안 연구: 음악, 문학교과 통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민경훈 (2007). 초등학교 문화 예술 교육으로서 '방과후학교'를 위한 통합형 음악 교육의 수업안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 195-196.

민경훈 외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153.

이영미 (2009). Swanwick의 음악경험발전이론에 기초한 음악극 창작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이은경 (2003). 음악극을 활용한 통합적 중등음악 교수·학습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임지현 (2009). 뮤지컬을 통한 음악수업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교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예슬 (2011). Jigsaw 모형을 활용한 뮤지컬 활동 수업 연구와 적용: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진원 (2008). 통합교과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음악지도에서의 의미 탐색. **음악교육연구. 34**.

조하나 (2008). 모둠별 음악극 창작 활동이 창의성 계발과 협동심 신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채선영 (2012). 통합적 음악교육으로서 뮤지컬 만들기 활동.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한옥근 (2006). **연극의 이론과 실기**. 서울: 푸른사상. 336-339.

ABSTRACT

A research on teaching methods for project-based musical activities linking curriculum subjects

Saerom Im

This research is about teaching methods of making project-based musical activities linking curriculum subjects based on th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the musical.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is emphasizing the imperativeness of producing the Musical activities which is combined by all kinds of artistic area by suggesting the link between Music and other curriculum subjects including other artistic area mainly centered on Music. In this study, I present basic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project-based musical activity, a main role of the guidance teachers, a process of progress and the contents of guidance of each subject in order to support the project between other curriculum subjects which is related on the composition of musical. Through this work, I expect a paradigm shift of making Musical in school field and more organized and decent School Musical making activities can be possible.

Key words: musical, linking curriculum subjects, combined curriculum subjects, fusion curriculum subjects, program for the free semester

투고일: 2017년 5월 26일, 심사(수정): 7월 17일(7월 20일), 게재확정일: 8월 25일